

2023. 9. 18.(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9월 1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2133-1920
빛디자인팀장	김선국	2133-1935
누 리 집	news.seoul.go.kr/culture/archives/520943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7쪽

서울시,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 신진예술가 20명 작품 선보인다

- 9.21.(목)~12.19.(화) 만리동광장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올해 세 번째 전시
- '예술인플랜2.0' 일환 신진예술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명(팀)의 작품 걸려
- 일러스트×모션그래픽전(展),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연계전(展) 등 영상 콘텐츠 다채
- 시 “작가 발굴 위한 공모 지속, 시민에게 의미 있는 미디어아트 접할 기회 선사”

- 서울시는 서울역 뒤편 ‘만리동광장’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전시 플랫폼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서 9.21.(목)~12.19.(화) 올해 세 번째 전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 2017년 9월, 만리동광장 우리은행 건물 상단에 가로 29m, 세로 7.7m로 설치된 미디어아트 전시 미디어인 ‘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연 4회의 기획·공모전시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전시된다.
 - 개장 이후 현재까지 총 27회, 93건 6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연간 약 2백만 명(월간 약 16만 명)이 관람하고 있다.
-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전시에서는 미디어아트 기술지원을 통해 창작된 ▲신진예술가 지원 전시, 일러스트레이

터와 모션그래픽 기관이 협력하여 선보이는 ▲일러스트×모션그래픽 전(展), 서울시립미술관 연계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전, 자연을 주제로 한 ▲네이처 프로젝트전(展)’ 등을 관람할 수 있다.

- 먼저 서울시 ‘예술인 플랜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디어아트 분야 예술가를 발굴·지원하고자 기획된 ▲신진예술가 지원공모 전시에서는 작품을 ‘미디어아트화’ 하는 데 기술지원이 필요한 작가를 공모, 선정된 40명(팀)에게 모션그래픽·영상 등 기술을 지원하여 전시할 20명(팀)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신진예술가 지원공모 참여 작가(20명(팀))〉

- 평면 분야(김도영, 도희, 블루인옐로우, 남아영, 박주빈, 이서연, 이은정, 이찬희, 정서인, 정연화)
- 영상콘텐츠 분야(김승연, 김태우, 박수민, 신영진, 호라, 어터멜론, 이승현, 장은우, 아트피플, 함지원-김동명)

- 일러스트레이터와 모션그래픽 기관이 협력하여 선보이는 ▲일러스트×모션그래픽展은 친근한 일러스트를 소재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미디어아트 전시다. 일상 속 이야기를 소재로 따뜻한 풍경을 담은 두 작가의 작품 6점을 선보인다.

- ‘규하나’ 작가는 도심 속 일상을 배경으로 삶의 여러 순간을 반복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모험〉, 〈소나기〉, 〈도심 속 히어로〉를, ‘이쿱’ 작가는 일상의 순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너와 나 우리〉, 〈고마워〉, 〈WINTER〉를 전시한다.

- 서울시립미술관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전 《이것 역시 지도》에서는 디아스포라, 이주, 언어와 경계처럼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개념을 다시 살펴보는 대상으로 ‘지도’를 소개한다. 오늘날 물리·문화적 ‘이주’로부터 생겨난 사회적 경계를 인식하고,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 예술적 소통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북유럽 낯선 외지인의 시선을 차용한 ‘유어 컴파니 네임(클라라 발라구에르·센지즈 멘규치)’의 〈가제 제목 여기〉와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 지방을 담은 단편 비디오 ‘나타샤 톤테이’의 〈2번 돌의 아이들〉,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출품작 ‘라야 마틴’의 단편영화 〈아르스 콜로니아〉을 만날 수 있다.

- 도시와 자연환경에서 ‘자연’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보는 공모·전시
▲ 네이처 프로젝트(Nature Project)는 2023년 ‘자연’과 ‘사계절’이라는 주제공모에 최종 선정된 작가 11명의 작품이 분기별로 전시되며, 이번 전시에는 5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 강수정·로칸킴·김지현·라운·윤경근 작가의 작품은 각각 기술 문명과 자연의 접목, 바다의 숭고함, 전통과 현대의 조화, 생명 존중과 인간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나무 형상을 담은 풍경을 보여주며 자연의 의미에 접근하는 독특하고 다양한 시선을 제시한다.

- 〈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매일 저녁 6시~11시 순차적으로 전시하며, 스마트폰으로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앱을 내려받아 자세한 전시 소개 및 상영표를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전시에 이어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 상영할 네 번째 전시 공모도 진행 중이다. ‘2023 애니메이션 공모전’과

‘2023 네이처 프로젝트 2차 공모’로, 10.16.(월)~10.22.(일) 작품 접수하며, 선정된 작품은 12월부터 열리는 올해 네 번째 전시 에 상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미디어아트 뿐 아니라 순수미술,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여 공공미디어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옥석 같은 신진작가 발굴을 위한 공모전도 꾸준히 열어 작가에게는 전시 기회를, 시민에게는 의미 있는 미디어아트를 접할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시일정 : 2023.9.21.~12.19.
- 전시구성 : 신진예술가 지원展, 일러스트×모션그래픽展, 제12회 서울로미디어시티비엔날레展, 네이처 프로젝트展
- 주요작품 소개

분 야	작가명	작품명	작품내용
신진예술가 지원전시 (평면)	이은정 〈일렁이는 것은 파도 뿐만이 아니다〉		세차고 단단한, 때로는 평온하고 잔잔하게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심경을 영상화한 작품
신진예술가 지원전시 (영상)	장은우 〈도시유람기〉		지금은 사라지고 추억 속에 있는 서울의 풍경을 산책했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영상작품
일러스트×모션그래픽전	규하나 〈소나기〉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문제를 비유한 작품으로 소나기를 피하기보다 때로는 맞으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표현한 일러스트 영상
일러스트×모션그래픽전	이쿵 〈WINTER〉		깊은 숲속에 사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서로 어우러져 각자의 겨울을 보내는 일러스트 영상으로 따듯한 온기가 있는 곳에 만 눈이 온다는 설정을 담은 작품
제12회 서울로미디어시티비엔날레	나타샤 톤테이 〈2번 돌의 아이들〉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 지방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관습에 관한 구작들을 모아 재구성한 단편 비디오로 땅의 정령이 깃든 돌과의 관계와 소통으로 정의되는 미나하사 부족의 세계관을 담은 영상
네이처 프로젝트	강수정 〈Another nature〉		기계화된 도시를 자연의 형상으로 변형한 작품으로, 자동차 기계 엔진의 가상 말과, 가상 꽃 등 기계를 자연으로 표현한 작품

공모명	'2023 애니메이션' 공모	'2023 네이처 프로젝트' 2차 공모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적 국민 누구나 (제약 없음)	
공모주제	시간(시간의 흐름)	자연(Nature) 또는 사계절
모집인원	5명	9명
지원사항	각 이백만원(2,000,000원)	각 일백만원(1,000,000원)
공고기간	2023. 9.4.(월)~ 10.22.(일)	
접수일자	2023. 10.16.(월) ~ 10.22.(일) 24:00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mediaartseoul@gmail.com)	
관련정보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520854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520844
공모 포스터		